

음악 교사의 퇴직 인식 및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tirement and Needs Analysis fo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of Music Teachers

홍수민*

Sumin Hong

초록 본 연구는 음악 교사가 퇴직을 어떻게 준비 및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음악교사의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의 45세 이상 음악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기술통계 및 t-test,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퇴직 인식은 대부분 보통 이상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나 구체적인 퇴직 계획 실천 문항에서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어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은 점수로 나타나며 특히 50대 초반의 연령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퇴직인식은 남성의 점수가 높은 반면 퇴직준비교육 요구 점수는 여성이 높았다. 한편 음악교사들은 퇴직 이후의 삶에서도 자신의 경력을 계속해서 살리기를 희망하지만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퇴직 후 맞이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에 대한 것을 더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 교사의 퇴직 및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교사퇴직, 음악교사, 퇴직인식, 퇴직준비교육, 평생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music teachers prepare and perceive retirement and to understand the demands fo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a survey of 102 music teachers nationwide, and the average score of each question, gender, and age group were analyzed. The perception of retirement was above average score(3.0) in most of the questions. However, on the question about how well the specific retirement plan was practiced, it showed below average score. The needs fo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showed high score from most of the surveye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gender differences, men's scores were high in retirement perception, while women's scores fo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were high. On the other hand, music teachers hope to continue to revive their careers in life after retirement, but the content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required more practical problems that could be encountered after retir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ope that specific strategies for retirement and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for music teachers will be discussed.

Key words: teacher retirement, music teacher, retirement awareness,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tori0824@snu.ac.kr

Student Researcher(Ph. D. degree co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Received: 31 May 2024, Reviewed (Revised): 5 July (10 July) 2024, Accepted: 26 July 2024

© 2024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개인의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의 시기는 조금씩 짧아지면서 퇴직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길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기대 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약 21년이 연장되었다(통계청, 2022). 한편 한국의 출산율은 늘어난 기대 수명에 반비례하여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더 이상 최근의 일이 아니며 이제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Kim & Park, 2016). 퇴직 후 삶이 길어지는 것은 개인적 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저출산 현상이 발생할 때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인구자원으로서 고령 인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고령 인구집단 중 하나가 퇴직 교사 집단이다. 퇴직한 교사는 다른 퇴직 집단에 비해 비교적 일정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교직경험으로 교육 및 교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통해 퇴직 이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더욱이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해 만62세의 정년이 보장되어 다른 직종에 비해 퇴직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질 수 있다(Kim, 2018). 이렇게 퇴직 이후에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사들이 매년 꾸준히 퇴직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나 교육을 제공하는 지원이나 노력이 부족하다. 최현규(Choi, 2016)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현직 교사 중 퇴직준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교사가 82.9%에 이른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퇴직준비교육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공통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하나에 그치며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도 매년 상황을 달리 하여 없어지기도 한다. 교사들이 퇴직 후 성공적으로 은퇴 생활에 적응하고 또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퇴직을 준비하는 태도를 지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영석(Kim, 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진행된 국내의 초·중등 교사의 퇴직에 관한 연구는 크게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인식, 퇴직 및 퇴직준비에 대한 인식, 퇴직한 교사의 삶에 대한 탐구, 명예퇴직 관련 연구, 퇴직교사 인력활용 방안 등의 주제로 분류된다. 이 중 교사들의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인식과 퇴직 및 퇴직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들의 한계점 중 하나로 교사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함을 들고 있다. 교사 집단의 다양성에는 김영석(Kim, 2018)이 제시한 학교급, 연령별, 교사 직위 등이 있으며, 중등 교사의 경우에는 교과전문성도 고려할 수 있다. 교직 생활 동안 한 교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경험은 중등 교사의 특수성이므로 이를 반영한 교사의 퇴직 관련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추세와 노령인구증가 현상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퇴직준비교육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문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퇴직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현재 교사 대상의 퇴직 교육 관련 선행연구 중 음악 교사의 퇴직에 관한 인식이나 퇴직준비과정, 퇴직 후 삶을 탐색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을 앞둔 중, 고등학교 음악 교사의 퇴직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를 분석하고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음악 교사들이 인식하는 퇴직과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을 확인하여 새로운 퇴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연구문제

해당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음악 교사는 퇴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는가?
- 2) 음악 교사의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 3) 성별, 연령대에 따른 퇴직 인식 및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대상을 음악 교사로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많은 수의 연구 대상 섭외가 어려워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및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에 한정된다는 제한을 가진다.

II. 이론적 배경

1. 퇴직의 개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퇴직이란 ‘현직에서 물러남’을 의미하며 한자어로는 ‘물러날 퇴’와 ‘벼슬 직’으로 합쳐진다.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로는 ‘은퇴’가 있다. 은퇴

는 ‘숨을 은’과 ‘물러날 퇴’가 합쳐진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 뜻을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는 퇴직을 곧 은퇴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제는 생애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주 직장에서의 퇴직을 한 이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보이며 더 이상 퇴직과 은퇴의 뜻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게 되었다(Kim, Oh & Ji, 2011).

이처럼 퇴직의 개념은 배경이 되는 사회와 연구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고, 심리적 · 사회적 · 경제적 의미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Lee, 2003). 퇴직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퇴직 대상자의 마음 상태로 보기도 하며 복합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퇴직의 여부를 판단 및 정의하는데, Atchley(1979)는 미국의 연구를 바탕으로 퇴직의 정의를 취업과 수입, 주관적 평가의 3가지 차원으로 제시한다. 취업 차원에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 근무를 하게 된 경우와, 수입 차원에서 연금과 같이 근로수입 외의, 퇴직계획에 의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관적 평가 차원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퇴직했다고 인식하는 경우를 퇴직이라 정의한다. 권문일(Kwon, 1997)은 퇴직을 주관적 평가, 경제활동 참가, 노동시간 및 임금수준, 개인의 주 직업의 중단, 연금수급 등 5가지 기준으로 정의한다. 주관적 평가에서는 퇴직자 스스로 퇴직을 인정하는 것을 퇴직으로 정의하며, 경제활동 참가 차원에서는 근로와 취업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퇴직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과 임금수준 차원에서는 두 가지 모두 일정 수준 이하로 급감하는 상태를 퇴직으로 보았다. 개인의 주 직업의 중단 차원에서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가장 오랜 시간 종사한 직업을 중단하는 시점 이후를 퇴직으로 규정하였다. 연금수급 차원에서는 개인이 공적 또는 기업 연금을 최초 수급하는 시점 이후를 퇴직으로 정의한다.

한편 퇴직 이후 새롭게 취업을 하고 또 다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퇴직을 복합적인 상태로 보고 해석하는 연구도 다수 있다. Atchley(1980)는 퇴직의 개념을 생애주기의 측면에서 생활주기상의 하나로서 사건(event), 역할(role), 과정(process)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퇴직의 단계를 퇴직 이전과 퇴직, 퇴직 종결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홍성희와 곽인숙(Hong & Kwak, 2007)은 퇴직을 새로운 지위와 역할로의 전이과정으로서 과거와 다른 역할로 사회화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퇴직의 개념은 주로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하였으며, 각각의 차원에서도 여러 측면의 접근 방법이 시도되었다. Ekerdt(1990)는 퇴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준거를 사용하여 이해해야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해답은 없다고 언급한다.

2. 퇴직준비교육의 개념

퇴직 준비란 퇴직에 따르는 변화 및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Taylor & Doverspike, 2003). Lo & Brown(1999)에 따르면 성공적인 퇴직 준비는 퇴직 이후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및 건강 상태와 관련 있다. 따라서 퇴직준비교육(pre-retirement education)은 퇴직예정자들이 퇴직에 대비하여 사전에 개인의 태도와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퇴직자의 성공적인 노후 대비를 도우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퇴직준비교육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본격적으로 연금 문제가 확산되면서 퇴직준비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중요해졌다(Song, 2006).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연구도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초기 Thompson(1958)의 연구에서 퇴직준비교육의 중요성이 잘 나타난다. 그는 퇴직을 대하는 긍정적 태도와 현실감각, 퇴직계획여부에 따라 성공적인 퇴직 생활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Charles(1971)는 퇴직준비교육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퇴직준비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비참여자보다 퇴직과 관련된 건강, 생활태도, 재정 등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했다(Lee, Jung, Oh & Song, 2018). Bruce(1982)는 퇴직준비교육 참여의 주된 목적이 활동적인 삶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닌 계획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퇴직준비교육의 목적은 퇴직이 내 주된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의 인생 계획에 의해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Ku & Yun, 2014).

홍기형과 나향진(Hong & Na, 2000)은 교사의 퇴직준비교육을 교원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가치 있게 퇴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기범(Jung, 2012) 역시 퇴직 교사를 위한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교직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다. 교사는 다른 직종과 달리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비교적 오랜 기간 유사한 환경의 조직에서 종사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인생의 중반기 혹은 후반기에 퇴직을 마주하게 되는데, 교사의 퇴직은 노후 사회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퇴직 이후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경험을 맞닥뜨리면서 대다수 교사들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생애학습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사의 퇴직은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함과 동시에 평생학습자의 역할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Ku & Yun, 2014). 교사들에게 퇴직이란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며 또 하나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학습자로서의 역할 전환인 셈이다. 특히 교과전문성을 지닌 중등교사는 교수자로서 비교적 좁고 깊은 영역의 교수 활동을 하게 된다.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오랜 시간

한 직업에 종사했다면 해당 경험이 퇴직 이후의 삶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며,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미리 구상하며 계획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현재 교사 퇴직에 관한 선행 연구는 퇴직관리 및 준비,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교급간 또는 교과 간 퇴직준비교육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개인에 맞는 구체적인 퇴직준비교육을 연구한 내용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통합적인 퇴직준비교육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개인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퇴직 교육도 요구될 것이다. 퇴직예정교사에 대한 평생교육 측면에서 교과 특수성을 고려한 퇴직준비교육 연구 역시 필요하다.

3. 교사 퇴직준비교육의 현황

현재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교사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각 시·도 교육청 직속교육연수원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퇴직교원을 위한 인생 설계’ 15차시 온라인 강좌가 있다.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퇴직 교사 대상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퇴직예정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의 ‘에리드 읽기쓰기 클리닉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난독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연수’를 진행했다. 7시간씩 총 14시간 교육과정이 서울시 교육청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해당 연수는 2022년 한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는 ‘퇴직 후 준비하는 인생경영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퇴직준비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퇴직 잔여 재직기간이 3년 이내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총 25시간이다. 또한 2022년에는 ‘100세 시대, 준비하는 삶’의 제목으로 2박 3일간 진행하는 연수를 개설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퇴직 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취업, 마음 치유, 건강 관리, 재무 등 다양한 과정이 편성되었다. 이외에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퇴직예정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직원수련원에서 진행하는 미래 설계 교육이 있다. 최근 퇴직 잔여 재직기간이 3년 이내인 전북교육감 소속 기관(학교)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상·하반기 각 7회씩 운영하고 있다. 늘어난 기대 수명과 가시화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목적으로 재무·재취업·마음치유 등의 과정을 편성하였다.

대전시 교육연수원에서는 매년 ‘퇴직 예정 미래설계 직무연수’를 3일간 실시하며, 생애설계, 재무, 건강관리 등의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은 2022년부터 퇴직 예정 교사 직무연수로 재무관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마음힐링 연수, 귀농·귀촌 연수, KDI 종합교육연수원이 경제 교육 등이 있으나 이는 퇴직준비교육이기 보다는 직무연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퇴직준비교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매년 여건에 따라 생기거나 사라지기도 하며, 대부분 동일한 퇴직준비교육과정과 내용으로 교사 개인 또는 교과 교사에 적합한 퇴직준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퇴직을 앞둔 45세 이상의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모집단은 퇴직예정 음악교사이다. 성별, 연령, 학교급을 개인특성변인에 포함시켰으며 전국의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표본추출은 임의추출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설문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설문방법은 구글 설문지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지는 우선적으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 대상과 주제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되었다.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의 자문을 받았으며 특히 문항의 이해도나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이후 퇴직예정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별도나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 및 재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총 37문항으로 크게 퇴직 인식과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각 영역별로 48개 문항을 제시한다. 퇴직 인식에 대한 20개 문항에서는 퇴직계획 문항 8개, 실질적 문제 문항 7개, 정서적 문제 문항 5개가 있다. 퇴직계획은 음악교사가 현재 본인의 퇴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며, 실질적 문제는 퇴직 이후 퇴직자가 현실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개발한 문항이다. 정서적 문제는 퇴직 이후 퇴직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한 문항이다.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의 17개 문항에는 교육계획 문항 4개, 교육방법 문항 7개, 교육내용 문항 6개가 있다. 교육계획은 교사가 퇴직준비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획하는지에 대한 문항이며,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은 음악교사가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요구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결과분석은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음악교사의 퇴직인식과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는 연구문제에서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퇴직인식 및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문제에서는 빈도분석과 t검정, f검정 등의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1> Statistical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research question

Research question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1	How do music teachers perceive and prepare for retirement?	frequency analysis
2	What is the needs fo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for music teachers?	frequency analysis
3	How do differences in retirement awareness and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needs appear according to gender and age group?	frequency analysis, t-test, f-test(Anova)

IV. 연구 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연령과 학교급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ategory		Frequency	Percent	Category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25	24.5	age	45-49	28	27.5
	female	77	75.5		50-54	21	20.6
school level	middle school	46	45.1		55-59	27	26.5
	high school	56	54.9		60-62	26	25.5

2. 전체 문항의 영역별 평균 점수

총 37개 문항을 각 영역별로 분류하여 평균점수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음악교사의 퇴직 계획에 대한 인식은 보통보다 낮은 편이었으며, 실질적 문제에 대한 점수는 보통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정서적 문제에서

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퇴직 후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음악교사의 요구를 살펴보면 교육계획, 교육방법, 교육내용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여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Average score of questions by categories

Category		Number of questions	Average	Category		Number of questions	Average
Retirement awareness	Retirement plan	8	2.78	Retirement plan		4	3.57
	practical matters	7	3.77	preparation method		7	3.12
	emotional matters	5	2.37	education contents		6	3.70

3. 퇴직에 대한 인식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퇴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개의 문항을 퇴직 계획과 실질적 문제, 정서적 문제로 분류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부정문항의 경우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실시하였다.

1) 퇴직 계획

퇴직 계획 8개 문항 중 3번, 6번 문항에서 보통(3.0) 이상의 점수가 나왔지만 모든 문항에서 4점을 넘지 않아 대체적으로 평균값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두 문항은 경제활동에 대한 희망과 여가활동에 대한 희망으로 상반된 내용이지만 퇴직 이후 활동 계획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평균점이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현재 퇴직 후 생활 설계 및 사회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담이나 토론을 하고 있다’로, 퇴직 이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Questions with the highest and lowest scores among retirement plan

Question		Average	SD
3	If I remain healthy after retirement, I plan to continue working.	3.23	1.289
6	I plan to focus on leisure activities rather than pursuing reemployment or starting a business after retirement.	3.56	1.068
8	I am currently engaging in specific consultations or discussions to plan for retirement life and social activities.	2.11	1.089

2) 실질적 문제

실질적 문제에 대한 음악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점수의 편차가 보이는 문항이 몇몇 보였다. 평균점이 가장 낮은 문항은 9번으로 실질적 문제 6개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음악 교사들이 노후를 위한 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4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 문항은 12, 15번의 2개 문항이다. 평균점이 가장 낮은 9번 문항을 제외하면 모든 문항이 보통 이상의 평균값이 나타났다.

<Table 5> Questions with the highest and lowest scores among practical issues

Question		Average	SD
9	*I don't think my retirement preparation is sufficient with my civil service/academic pension alone.	2.33	1.197
14	To achieve satisfaction in retirement life, wealth and financial stability are paramount.	4.14	.833
15	I will continue to maintain social connections through clubs and social groups even after retirement.	4.12	.871

* means negative questions, and scores were analyzed by inversely assigning them.

3) 정서적 문제

총 5개 문항으로 모든 문항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가 약 1.1점의 차이를 보이며 건강문제에 대한 염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상하는 문제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6> Questions with the highest and lowest scores among emotional issues

Question		Average	SD
18	*I am concerned about health issues after retirement.	3.00	1.251
19	*I anticipate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after retirement.	4.20	.975

4.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

1) 교육 계획

퇴직준비교육 계획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가 나왔으며,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는 21번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퇴직준비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23번 문항은 2번째로 점수가 높았고 22번 문항에서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여 음악 교사들의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Table 7> Above-average score questions in the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lan

	Question	Average	SD
21	If provided with education for retirement preparation, I am willing to participate.	4.04	1.052
22	I am willing to participate in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for teachers even if it incurs some cost.	3.31	1.152
23	*I have never received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3.80	1.456
24	I am currently in need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3.13	1.175

2) 교육 방법

퇴직준비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6, 29번 문항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음악 교사들은 국가 및 기관 차원에서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반면 30, 31번 문항의 점수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교사들이 현재 퇴직준비교육을 위한 제도적, 환경적 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The questions with the highest score and the lowest score in the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method

	Question	Average	SD
26	There is no need for national-level support fo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4.18	1.038
29	Institutional budget support is necessary for effective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4.18	.938
30	I believe that there is a well-established legal, polic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eache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at present.	2.36	1.184
31	The current affiliated school has created conditions or a culture conducive to participating in teache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2.33	1.24

3) 교육 내용

퇴직준비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 경력·인생 계획·건강관리·재정관리·여가 및 취미·정보화교육 내용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제시된 문항의 교육 내용은 대부분 퇴직준비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내용 범주이며, 음악 교사들은 재정관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의 경력과 관련된 퇴직준비교육 내용 문항에 대한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Table 9> The questions with the highest score and the lowest score in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Question	Average	SD
32	If I were to take a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I would prefer to choose one related to my career(music or music education).	3.32	1.236
35	In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it is essential to have content related to financial planning, including pension systems, taxation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and so on.	4.53	.741

5. 성별에 따른 퇴직 인식 및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점수 차를 보이는 문항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37개 문항 중 여성의 평균점이 높은 문항은 퇴직계획 1개, 실질적 문제 3개, 퇴직준비교육계획 3개, 교육방법 4개, 교육내용 3개 문항이다. 한편 퇴직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여성의 점수가 높은 문항이 4개에 그치는 반면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대부분 여성 점수가 남성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0.05)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하는 문항은 4, 6, 25, 32, 35번이다. 자아실현을 위한 재취업 희망에 대해 남성은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낮은 점수를 보여 유의한 차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한 3번 문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이로써 재취업을 통한 자아실현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재취업보다는 여가활동을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6번 문항에서도 여성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경제활동보다는 여가활동이나 봉사 등의 활동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25번)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중 음악교사 경력과 관련된 내용

은 여성에 비해 남성 점수가 더 높았다. 반면 연금정보나 자산관리 등의 재정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여성이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0> Questions showing score differences by gender group

Question		Gender	Average	P-value
4	I am planning to re-employment for self-realization after retirement.	m	3.16	.006
		f	2.66	
6	I plan to focus on leisure activities rather than pursuing reemployment or starting a business after retirement.	m	3.28	.025
		f	3.65	
25	Teache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must be conducted as a mandatory requirement.	m	3.80	.030
		f	4.16	
32	If I were to take a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I would prefer to choose one related to my career(music or music education).	m	3.80	.026
		f	3.17	
35	In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it is essential to have content related to financial planning, including pension systems, taxation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and so on.	m	4.32	.026
		f	4.60	

6. 연령대에 따른 퇴직 인식 및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교사의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문항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평균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f검정(Anova)을 실행한 결과, 아래 5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사학 연금의 만족도 문항에서는 가장 낮은 연령인 45-49세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 문제와 관련하여 퇴직 시기가 비교적 먼 연령대의 현 인식을 짐작해볼 수 있다. 노후의 금전적 준비도 문항과 퇴직 후 느낄 정서적 불안함을 조사하는 문항의 경우 45-49세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퇴직 연령에 가까울수록 금전적 준비에 대한 불안함이 덜 하며, 퇴직 이후를 생각할 때 느끼는 불안함도 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 관련 문항은 50-54세의 점수가 가장 낮고 45-49세의 점수가 2번째로 낮았다. 설문 대상의 범주에서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교사들이 퇴직 후 건강문제에 대한 염려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문항은 퇴직준비교육의 경험을 조사하는 문항이다. 모든 연령에서 보통 이상의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45-49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음악교사 중에서는 퇴직 연령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재 퇴직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문항은 50-54세

의 점수가 가장 높아 퇴직준비교사들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배려에는 퇴직준비교육의 적절한 시기도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Table 11> Questions showing score differences by age group

Question		Age group	Average	P-value
9	*I don't think my retirement preparation is sufficient with my civil service/academic pension alone.	45-49	1.7857	.030
		50-54	2.3810	
		55-59	2.6667	
		60-62	2.5385	
10	I believe I am financially prepared for life after retirement.	45-49	2.25	<.001
		50-54	3.10	
		55-59	3.30	
		60-62	3.50	
16	*I feel anxious when I think about life after retirement.	45-49	2.7500	.004
		50-54	3.0952	
		55-59	3.5556	
		60-62	3.8077	
18	*I am concerned about health issues after retirement.	45-49	2.7500	.025
		50-54	2.5714	
		55-59	3.0370	
		60-62	3.5769	
23	*I have never received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45-49	4.3929	.029
		50-54	4.0000	
		55-59	3.4815	
		60-62	3.3462	

7. 음악교사 경력과 관련된 문항 분석 결과 및 연구문제 논의

본 연구에서 음악교사에게 특히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은 5, 11, 32번 문항으로 모두 음악교사 경력과 관련한 내용이다. 5번 문항은 퇴직계획영역 문항으로 퇴직 후에도 음악 또는 음악 교육과 관련된 직종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예정인지를 조사했다. 결과는 보통 이하의 점수(2.64)로 나타났으며 퇴직계획영역 문항 8개 중 3번째로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는 퇴직 이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지에 대한 3번 문항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3.23)가 나타난 것과는 대조되는 내용이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음악 교사 경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11번 문항은 실질적 문제 영역으로 퇴직 후 자신의 경력을 살리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보통 이상의 평균점수(3.45)로 나타났다. 퇴직 후 여가활동에 대한 희망을 조사하는 6번 문항의 점수(3.56)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참고하여 5번, 11번 문항의 결과를 분석한다면 음악교사들은 대부분 재취업이나 창업 등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 후 삶에서 음악과 함께 하며 살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32번 문항은 퇴직준비교육의 내용에 대한 설문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음악 또는 음악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선택할지에 대한 것이다. 결과는 보통 이상(3.32)의 점수였으나 동일한 영역의 6개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음악교사들은 퇴직 후 음악과 가까운 삶을 살고자 하지만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 음악이나 음악 교육보다는 건강, 재정 등의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Table 10>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문항 내용은 성별에 따른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음악교사 경력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을 수강하고자 하였으나 여성은 음악 관련 내용보다는 재정 관리 교육내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Table 12> Contents of questions related to music teacher's career

	Question	Average	SD
3	After retirement, I will continue to work as long as my health allows.	3.23	1.289
5	After my retirement, I will be rehiring or starting a business in a job similar to my current job (music and music education related jobs).	2.64	1.364
6	I plan to focus on leisure activities rather than pursuing reemployment or starting a business after retirement.	3.56	1.068
11	I hope to continue my career in life after retirement.	3.45	1.122
32	If I were to take a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I would prefer to choose one related to my career(music or music education).	3.32	1.236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음악교사의 퇴직 인식과 준비 정도를 살펴볼 때 대부분 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은 부족하지만 퇴직 이후의 삶을 그려보고 퇴직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악교사 경력이 퇴직 이후 경제활동을 선택하는 데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삶에서 경력을 살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여가 활동 및 봉사 등에 대한 진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음악교사의 요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높은 편이며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수립 및 여건 조성이 미비하다고 인식하며,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 역시 모든 분야에서 높은 편이다. 특히 음악교사 경력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건강, 재정, 정보화교육 등 퇴직 후에 실질적으로 맞이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더욱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이는데, 남성 교사는 전자의 내용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 교사는 후자를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요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퇴직자들이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셋째, 음악교사의 성별, 연령대에 따른 퇴직 인식 및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퇴직인식의 경우 남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내용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과 여성 간 유의한 점수 차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퇴직 후의 삶에서 음악교사 경력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의지는 모두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에 따른 퇴직인식은 음악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정서적 불안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과 관련된 진로나 취미활동, 경제활동 등의 교과맞춤형 퇴직프로그램 역시 필요할 것이며, 교사 개인의 퇴직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박표진, 기영호(Park & Gi, 2009)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준비교육이 교원의 성공적인 노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음악 교사의 퇴직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퇴직준비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 관련 분야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퇴직 후 재취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금부터는 퇴직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및 논의 역시 필요한 상황이며, 나아가 음악 교사에게 적합한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퇴직 예정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퇴직에 대한 인식 및 준비 정도를 알아보고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45세 이상 음악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t-test, one-way

ANOV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악교사들의 퇴직 계획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보통(3.0)을 웃도는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 활동에 대한 계획은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나 실천에는 낮은 점수를 보여 음악 교사에게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후준비를 위한 교사 연금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용현(Ga, 2015)의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부분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사보험에 가입하는 등 노후준비를 따로 하는 경향성을 참고할 수 있다. 퇴직에 대한 정서적 문제에서는 대부분 보통 이상의 점수가 나와 퇴직 이후를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음악 교사들의 요구 문항에서도 대부분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 및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교사들이 퇴직준비교육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참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50-54세의 연령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50세 이하는 아직 퇴직준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을 수 있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많아지는 만큼 교사의 퇴직 연령이 조금씩 당겨지면서 50대 초반부터 퇴직준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가 및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점수가 높게 나온 반면 퇴직준비교육을 받기 위한 현재의 학교 환경, 정책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 교사들은 퇴직준비교육의 내용 중에서도 재정관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가장 크게 공감하였다.

퇴직에 대한 인식과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를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하였을 때, 퇴직 인식은 남성의 평균 점수가 여성에 비해 높았으나 퇴직준비교육의 요구를 알아보는 문항 점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미리(Lee & Lee, 2014)의 서울시 퇴직 예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 소방공무원이 남성 소방공무원보다 퇴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준비 정도도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는 ‘교사 연금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연령(45-49세)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에 대한 금전적 준비’나 ‘정서적 불안감’도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경험’은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나 퇴직에 가까운 연령일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음악 교사들이 퇴직을 인식하는 정도는 높으나 퇴직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정도는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현재 퇴직 예정의 음악 교사들이 퇴직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봤

다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퇴직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교사 퇴직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므로 음악 교사의 퇴직 준비에 대한 현 주소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비교·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구체화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중요해진 시대이다. 과거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인 퇴직 기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한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음악 교사들이 스스로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참여하고자 하므로 이들의 퇴직 인식 및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퇴직이 그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References

- Atchley, R. C. (1979). Issues in retirement research. *The Gerontologist*, 19(1), 44-54.
- _____. (1980). *Social forces in later life* (2nd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 Bruce, W. (1982). Preparation for retirement. *Nursing Times*, October 6, 45-49.
- Charles, D. (1971).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 pre-retirement program. *The Gerontologist*, 11(1), 24-28.
- Cho, D. H. (202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second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and incumbent music teachers on teacher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3), 179-205.
- Choi, H. K. (2016). A study on awareness of social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efficient utilization plans of retired teacher's professionalism.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Ekerdt, D. J. (1990). On defining persons as retired. *Journal of Aging Studies*, 4(3), 211-229.
- Ga, Y. H. (2015). A Study on a local government official's attitude towards retirement and preparation for old age. *Korean Local Administration Review*, 12(2), 101-127.
- Hong, S.-H., & Kwak, I.-S. (2007). Causal effects on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5(2), 89-104.
- Hong, K. H., & Na, H. J. (2000). A study on education for retiring teachers. *Korean Journal*

-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8(2), 187-209.
- Jung, K. B. (2012). A study on the retirement life and pre-retirement education demands of the teaching staff of secondary schoo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4), 141-161.
- Jung, K. H. (2004). Population aging and age-integrated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5(1), 11-26.
- Ki, Y. H. (2000). Theoretical foundation of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model for retirement preparation.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3(4), 17-41.
- Kim, M. H., & Park, J. Y. (2016). An exploring a scheduled retirement teacher's life preparation after retirement from perspective of age integrat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2(4), 31-59.
- Kim, Y. K., Oh, S. Y., & Ji, K. W. (2011).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policy alternatives for public servant retirement management in an aging society*. Seoul: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Kim, Y. S. (2018). Review and critique of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retirement research. *Korean Lifelong Education and HRD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4(3), 31-59.
- Ku, K. H., & Yun, M. H. (2014). A program design through needs assessment about teachers' pre-retirement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0(3), 119-144.
- Kwon, M. I. (1997). Determinants of economic well - being of the elderly in Korea.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13(2), 191-223.
- Lee, J. G., Jung, H. J., Oh, I. Y., & Song, H. L. (2018). Life-based career design program development by industry and occupation for middle-aged using rapid prototyping approac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9(5), 101-122.
- Lee, J. U. (2003). A study on the dimensions of teacher's retirement expectat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9(1), 375-397.
- Lee, M. L., & Lee, Y. M. (2014). The retirement of the pre-retired fire-fighting officers in Seoul metropolitan city: Current readines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8(3), 129-153.
- Lee, S. Y. (2006). A review of successful aging research in South Korea. *Journal of Welfare Administration*, 16(1), 117-136.
- Lo, R., & Brown, R. (1999). Stress and adaptation: Preparation for successful retirement.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8(1), 30-38.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2). 2022 life table. Retrieved November 27, 2023,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8&act=view&list_no=428312.
- Park, K. Y. (2010). A program exploration through a survey of teachers' awareness and needs about teachers' pre-retirement education. Doctorial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 Park, P. J., & Ki, Y. H. (2009). Pre-retirement education effect on teacher's successful aging. *Korean Lifelong Education and HRD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5(1), 181-209.
- Park, S. H. (2024). An investigation on music teachers' perception of music education as an ecological transformatio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2), 187-210.
- Park, S. I. (2023). A study on the music textbook analysis and teacher perception in elementary music care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2), 209-234.
- Park, W. K. (2009). A policy analysis on retirement management for police officers. Doctori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 Song, K. C. (2006). Demand and need for teache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Doctori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Taylor, M. A., & Doverspike, D. (2003). *Retirement planning and preparation* (pp. 53-82). Retirement: Reasons, Processes, and Results.
- Thompson, W. E. (1958). Pre-retirement anticipation and adjustment in retirement. *Social Issues*, 14(2), 35-45.